

리드의 지각이론에서 감각작용과 개념작용의 역할:

리드의 직접 실재론*

김종원**

주제분류 영국 경험론, 인식론

주요어 리드, 직접실재론, 감각작용, 개념작용, 지각작용, 관념의 길

요약문

리드는 근대철학자들이 심신의 상호작용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해 낸 ‘관념’이라는 심적 대상물의 존재를 거부하고 우리의 마음이 관념의 매개 없이도 외부 대상을 직접 지각할 수 있다는 지각에 관한 직접 실재론을 주장한다. 리드는 외부 대상 지각에서 직접 지각하는 것은 마음 안에 있는 관념과 같은 것이 아니라 마음 밖에 있는 실제 외부 대상 혹은 외부 대상의 성질로, 외부 대상은 감각작용에 의해서 마음 상태의 일종의 변용을 일으키며 이 감각작용은 다시 ‘시사’라는 방법을 통해 그 대상을 마음 안에 그려내는 개념작용을 일으킨다고 주장한다. 이 때 개념작용은 그 외부 대상이 실제 존재하는지 혹은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단순히 감각작용에 의해서 시사된 그 대상을 마음속에 그려내는 역할을 하는데 이 때 마음속에 그려진 그 외부 대상에 실제로 현재 존재한다는 판단이 즉각적으로 더해지면서 외부 대상의 지각된다고 보는 것이 리드의 직접 실재론의 주장이다. 하지만 리드의 감각작용의 불분명한 설명은 리드의 지각이론을 직접 실재론으로 해석하기 어렵게 만든다. 즉, 감각작용이 용어만 다를 뿐 관념과 동일한 역할을 하므로 리드의 이론도 직접 실재론이 될 수 없다는 비판에 대해 리드는 감각작용이 역할이란 관념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B5A07917507)

** 서강대학교

과 달리 심적 대상물을 가지지 않는 심적 상태에 불과하고 감각작용이 외부 대상과 지각 사이에서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둘 사이의 인과적 매개에 불과할 뿐 인지적인 매개는 아니라고 주장함으로써 리드의 지각이론을 모순 없이 직접실재론으로 해석할 수 있다.

1. 들어가며

일상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가 외부 대상에 대한 지식을 소유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당연한 생각일 것이다. 나무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면, 우리는 그 나무의 크기, 모습, 색깔, 향기와 같은 것들을 감각에 의해서 당연히 지각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자면 이러한 세상에 대한 앎과 연관된 문제들, 즉 ‘마음이 외부 대상과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어떻게 외부 대상이 내 앞에 나타내게 되는가’와 같은 질문들은 서양 철학의 초창기 때부터 철학의 중요한 문제로 상정되어 왔다. 근대 이전의 철학자들도 질료와 형상의 결합체인 시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물질적 대상이 정신에 들어오는 과정을 설명하게 위해서 감각 형상을 도입하거나 조명설을 가정하는 방식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했고 근대철학자들도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특히 데카르트가 마음과 물체를 엄격히 구별하고, 마음과 정신이 완전히 이질적(heterogeneous)인 것을 보인 이후에는 ‘어떻게 인식주체로서 정신적이고 비물질적인 정신이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세상과 접촉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더욱 중요한 철학적 문제로 등장했고 많은 근대철학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이론들을 고안하게 되었다.

이 문제의 배후에는 스토아학파로부터 인정되어 왔고 17세기 이후 대부분의 근대철학자들에 의해서 받아들였던 인과성에 관해 가정들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가정들이란 ‘인접성의 원리’로 불리는 ‘원거리에서 발생하는 인과적 행동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과의 인접성에 관한 신념과 ‘동질성의 원리’로 불리는 ‘동질적인 것들은 오직 동질적인 것들에게만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신념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17-18세기 근대 철학자들은 이 두 가지 가정을 자신의 이론을 세우는데 있어 공

리로 받아들였고, 이 가정들 때문에 물체와 이질적이면서 동시에 물리적으로도 떨어져있는 정신이 어떻게 물체를 인식하고 물체와 상호 인과적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 가정들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근대철학자들은 결국 물질적인 것을 정신적인 것으로 환원시키거나 정신적인 것을 물질적인 것으로 환원하는 방식으로밖에 자신들의 이론을 전개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고안된 개념이 바로 ‘관념(idea)’이라는 심적 대상물이다.

이 논문을 통해 필자는 리드가 당시에 존재하던 관념을 기반으로 하는 이론들을 어떻게 논박했는지를 살펴보고 그 대안으로 리드가 제시한 직접 실재론으로서의 지각이론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리드의 지각이론이 과연 직접 실재론일 있는가에 있어 핵심 문제가 되는 감각작용의 역할을 개념작용의 역할과 연관하여 알아보고 리드의 감각작용을 통한 지각과정의 설명이 관념을 사용하는 당시의 관념이론들과는 다르게 우리가 외부 대상을 직접 지각한다고 주장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이고자 한다.

2. ‘관념의 길’ 논박

리드는 데카르트 이후 관념을 사용하여 세상을 파악하거나 지각과정을 설명하는 모든 철학체계를 ‘관념의 길(the way of ideas)’ 또는 ‘관념이론 체계’ 라고 부른다. 리드 철학의 출발점은 데카르트 이후 흄에까지 이르는 ‘관념의 길’ 지지자들이 가지고 있던 가정을 거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관념’이란 사고실체인 우리 정신이 어떻게 연장실체인 외부 대상을 지각하는가에 대한 해결책이자 물리적 실체와 정신적인 실체사이의 연결고리로서, 실제 이원론자인 데카르트에 의해 정신적 매개물로 도입된

개념이었다. 일상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물리적인 대상을 직접 지각할 수 있다는 생각은 당연시되지만 근대 초기의 과학관과 실체 이원론을 따르는 철학자들에 따르면 정신과 연장이라는 서로 독립적인 실체들은 원칙적으로는 어떠한 상호 작용도 서로에게 끼칠 수 없는 두 개의 전혀 다른 이질적인 실체들로 상정된다. 따라서 현실과 이론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초기 근대철학자들은 물리적 외부 대상을 심적 대상으로 바꾸어 지각작용을 가능하게 만들려고 시도했고 이 시도의 결과가 바로 심적인 대상물로서의 ‘관념’이라는 개념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처음에는 외부 대상에 대한 심적 대상물로서 도입된 관념은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해 우리의 모든 정신적인 활동의 유일한 결과물로 바뀌게 되었고, 따라서 지각할 때 뿐 아니라 상상과 기억과 같은 다른 정신적인 활동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유일한 정신적 대상물이 되었다. 이처럼 근대철학자들에게 관념이란 외부 세상에 대한 설명을 위해 도입되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정신작용을 설명하는 필수적인 개념으로 빠르게 정착되어 왔다. 하지만 아무리 관념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지각작용에서 정신과 물리적인 대상이 만나는 그 순간의 인과관계는 설명할 수 없으므로 지각작용을 설명하는데 있어 관념은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철학자들은 관념을 포기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철학적 출발점으로 삼았으며, 관념의 존재를 유지하면서도 자신들 나름대로의 지각 과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상적실재론, 실체일원론, 관념론, 회의주의 등 다양한 방향으로 자신들의 이론을 전개해 나가게 되었다는 것이 리드가 파악한 관념을 바탕으로 삼은 근대철학의 발전과정이었다.

자신의 철학 초기 리드는 데카르트 이후로 흄 시대 전까지 주된 철학적 입장인 소위 ‘관념의 길’이라고 부르는 당시 철학의 문제점을 깨닫지 못했다. 이 당시 리드는 버클리의 사상에 경도되어 있었으며 자신의 섭리 자연주의(providential naturalism)의 주장을 ‘관념의 길’ 체계 안에서 설명하려 하였다. 하지만 흄이 1739년에 『인간본성에 관한 논고』를 발표

하자마자 리드는 곧 관념을 바탕으로 하는 이론체계의 위험성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리드는 흄의 회의주의적 체계가 우리의 일상 세계뿐만 아니라 기독교적 진리를 파괴하기 때문에 합리적 종교와 도덕성의 가능성 자체를 위협한다고 보았는데(IHM, XVI), 이러한 위험성을 인지한 리드는 본격적으로 흄의 회의주의의 배경이 되었던 데카르트 이후 관념을 바탕으로 하는 다른 이론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1739년 이후의 리드의 관심은 흄의 회의주의와 그 이론의 배경이 되는 ‘관념의 길’의 거짓을 지적하고 관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신만의 새로운 철학 이론을 제시하는 것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리드는 관념이론체계를 거부하므로, 자신의 지각이론에서 관념이라는 개념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리드는 관념 없이 어떻게 우리의 정신이 외부 대상을 지각할 수 있다고 말하는가? 이 질문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리드가 관념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먼저 살펴보자. 리드는 자신의 이론 안에 관념을 받아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해한 근대철학자들이 사용한 관념이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철학자들의 저작에서 ‘관념’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마음안의 형성된 특정한 상(images)이나 형(types)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고 혹은 의식의 직접적인 대상이다. 우리는 관념이 없이는 사고의 직접적 대상의 원본(혹은 원형)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알 수 없다. (IHM 315)

물론 철학자들에 따라 관념에 관한 다양한 의미들이 있겠지만 모든 관념이론가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관념은 사고의 직접적 대상이라는 점이다. 외부 대상의 지각에 있어서도 관념은 외부 대상과 인식주체 사이를 매개하는 특별한 대상물, 즉 정신적인 대상물로 간주된다.¹⁾ 따라

1) Yolton, (1996) 53. 리드는 일상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관념 대상이 아니라 중

서 관념이 지각과정 가운데 대상물(object)로 존재한다는 주장은 우리가 마음 안에 들어온 심적인 대상물로서의 관념만을 직접 지각할 뿐 외부에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을 직접적으로 지각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함축한다. 리드는 이러한 주장을 다음의 몇 가지 이유를 들어 거부한다.

1. 이 주장은 인간의 보편적인 상식과 반대된다. (EIP 172)
2. 관념을 다루는 철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관념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지만 단지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만을 가지고 그 존재를 증명하기에는 너무 약한 것처럼 보인다. (EIP 174)
3.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관념의 존재에 대해서는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관념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거의 일치점을 보이지 않는다. 만약 관념이 단순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면 관념은 우리가 가장 잘 접근하기 쉬운 것이어야 하고 익숙해져야 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EIP 184)
4. 관념의 사용은 마음의 어떠한 작용도 더 잘 이해하게 만들지 않는다. (EIP 184)

리드가 관념을 반대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관념이라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애매한 위치 때문이다. 지각작용이 어떤 식으로든 외부 세계와 대응하지 않는다면, 외부세계로부터 소외될 위험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지각과정에서 관념의 사용은 항상 이러한 위험성을 내포하게 만든다. 관념만을 대상으로 삼는 지각작용은 그 관념이 참된 실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지를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실재와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 실제로 리드가 살았던 근대철학의 역사는 이러한 사실을 버클리나 흄의 철학을 통해 보여주었다. 따라서 리드는 관념이란 불필요한 고안물일 따름이며 우리는 관념이 없더라도 실제 외부 대상을 직

종 마음의 작용을 지칭하기도 한다는 점(로크)을 인정한다. 그리고 만약 관념이 마음의 작용만을 의미한다면 자신은 그 의미를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EIP 27; 171를 참조하라

접 지각할 수 있다고 보았다. 관념의 매개를 통해 간접적으로(추론적으로) 외부세계를 지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근대 철학자들과는 달리 리드는 외부세계를 직접 지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직접 실재론자로 간주된다.

3. 리드의 지각 이론

그렇다면 리드는 어떻게 관념 없이 외부 대상의 지각을 설명하는가? 리드의 지각 과정을 간단히 설명하기 위해서 책상이 놓여있는 방 안에 우리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때 우리는 방안의 책상을 우리의 눈과 손을 통해 보고 만질 것이며 책상은 이러한 우리의 감각 기관 위에 다양한 물리적 인상들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물리적 인상들은 그 책상이 가지고 있는 딱딱하고, 네모랴고, 갈색의 느낌들을 감각작용(sensation)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제공한다. 이 때 우리의 감각작용과 책상의 물리적 특성들 사이에는 어떠한 유사성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리드는 둘 사이의 관계를 인과적 관계로 파악하지 않는다. 오히려 리드는 이 관계를 기호화의 관계로 파악한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딱딱함의 감각작용이란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주어진 자연적 기호로서 실제 대상이 가지고 있는 딱딱함이라는 성질을 표시한다고 리드는 주장한다. 그 뿐만 아니라 감각작용(즉, 딱딱함이라는 느낌)이라는 자연적 기호는 즉각적으로 지각작용을 우리 마음 안에 불러일으킨다. 이를 리드는 ‘시사한다(suggest)’고 표현하는데, 감각작용을 통해 시사된 지각작용은 대상에 대한 개념작용(conception)과 그 대상이 현재 존재한다는 존재 신념(existential belief)을 구성요소로 갖는 정신작용으로, 지각작용을 통해 우리는 책상이라는 외부 대상을 마음 안에 그려낼 수 있고 동시에 그렇게

그러낸 대상이 현재 내 마음밖에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게 만든다. 이상의 과정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외부 대상 지각하는지에 관한 대략적인 리드의 설명이다.2)

1) 감각작용

이제 리드가 말하는 외부 대상에 대한 지각의 전체과정을 세부적으로 하나씩 살펴보자. 우선, 우리의 마음이 외부 대상을 최초로 만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감각작용부터 시작해보자. 리드는 다음과 같이 감각작용을 설명한다.

감각작용은 철학자들에 의해 이름 붙여진 하나의 마음의 활동으로, 그 활동 자체로부터 구별된 어떠한 대상도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모든 다른 활동들과는 구별될 수 있는 활동이다. (EIP 36)

감각작용은 다른 모든 정신작용과 달리 어떠한 대상도 가지지 않는다는 이러한 주장은 17-18세기 근대철학자로서는 리드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주장이라 할 수 있다. 리드에게 감각작용은 고통, 슬픔과 같은 내적인 느낌과 유사한 마음의 활동으로, 우리가 고통을 느낄 때 그 고통의 느낌(the feeling)과 느껴진 것(the thing felt)이 하나인 것처럼, 반성을 통해 감각작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감각작용은 마음 상태의 일종의 변용(a modification)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우리가 딱딱함이라는 감각작용을 실행할 때 우리 마음은 어떠한 대상을 생각하지도 않은 채 단지 딱딱하다는 느낌만을 갖게 되는데 이는 고통과 같은 느낌(감정)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방식과 동일하다는 것이 리드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2) 리드는 심신간의 인과적 상호작용을 대신하는 기호이론을 제시하고 기호와 기호화된 것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과적 용어 대신에 ‘시사한다(suggest)’, ‘계기로 작용한다(occasion)’, ‘표시한다(signify)’와 같은 단어들을 사용한다. IHM 72; EIP 195-196을 참조하라

어떻게 이러한 감각작용이 발생하는가? 외부 대상들은 우리의 감각기관에 물리적 인상을 제공하고 우리의 신경들은 이러한 인상들을 우리의 뇌로 전달한다. 하지만 아무리 이러한 물리적 인상들의 연쇄적 전이를 쫓아간다고 해도, 물리적 인상들과 감각작용 사이에는 어떠한 유사성도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인과적으로 연결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는 감각작용 자체에 도달할 수 없다. 리드는 이 감각작용을 설명하기 위해 인과 관계 대신에 ‘기호화(signification)’라는 관계를 사용한다. 딱딱함을 느끼는 우리 마음의 감각작용은 외부 대상인 책상이 가지고 있는 딱딱함의 성질에 대한 자연적 기호(natural sign)이고 책상의 딱딱함이라는 성질은 감각작용에 의해서 기호화(표시)된 것(the thing signified)으로 간주된다.(IHM 56) 이는 마치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언어에서 대상을 가리키는 단어가 단어에 의해서 표시되어지는 것을 지칭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감각작용과 외부 대상의 성질 사이의 연결은 어떠한 인과관계를 가정함 없이 진행된다. 물론 감각작용이 가지는 기호로서의 기능과 단어가 가지는 기호 기능에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즉, 언어에 있어서 단어와 대상간의 관계는 임의적인 반면, 감각작용과 외부 대상의 성질 간의 관계는 우연적이기는 하나 임의적으로 맺어진 것이 아닌 자연에 의해서 서로 대응하게 되어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기호화 과정은 어떠한 매개 없이 외부 대상과 마음 사이에서 즉각적으로 발생하기는 하지만 인과적 과정은 아니어서 외부 대상의 성질이 감각작용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리드는 외부 대상이 감각작용에 의해 기호화되었다는 것이 인과 관계는 아니지만 항상적 연계(constant succession)를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종종 계기되었다(occasioned)고 표현한다.(EIP 204;235.)³⁾ 이는 마치 ‘연기가 불의 자연적인 기호’라고 했을

3) Chappell, (1989) 51; Ben-Zeev, (1989) 93. 여기서 말하는 계기(occasion)는 ‘인과성 없이 두 부분(대상) 사이의 연결점을 제공하는 기회’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때 둘 사이의 관계가 법칙적으로 항상 연결되어 대응하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인과적 관계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이러한 리드의 기호이론은 외부 대상의 성질이 일차성질이든지 이차성질이든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는 리드가 일차성질과 이차성질을 구별하는 방식과 연관되어 있다. 당시에는 일차성질과 이차성질을 구별하는 두 가지 지배적인 이론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로크식의 구별로, 로크는 일차성질을 물체 안에 실제로 존재하는 성질로 간주하고 그 성질에 대한 우리의 관념과 그 성질 사이에 유사성을 인정함으로써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 직접적으로 우리 안에 관념을 형성시키는 성질로 이해한다. 로크에 따르면, 크기, 모양, 연장성, 운동성과 같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기계적 속성을 일차성질로 간주된다. 로크에게 이차 성질은 물체 안에 존재하는 성질이기는 하지만 감각기관이 일차 성질을 받아들인 결과로 생겨난 것으로 일차성질과 달리 그 성질이 우리 안에 생성시킨 관념들과 전혀 유사성이 없는 성질로 간주된다.⁴⁾ 두 번째 이론은 버클리가 주장한 것으로, 두 성질의 구별 자체를 없애는 것이다. 버클리는 로크의 이론과 맞닿아있는 부분, 즉, 마음 안에 발생하는 이차 성질로부터 자신의 이론은 시작한다. 감각적 성질인 이차성질을 마음 안에 주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 성질을 기초로 해서 일차성질로 나아가는데, 일차 성질 역시 그것이 마음 안에 지각되는 것이라면 마음 안에 존재해야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로크식의 일차성질과 이차성질의 구별을 제거해 버린다.⁵⁾

일차성질과 이차성질에 관한 리드의 입장은 앞선 두 이론과는 다르다. 이차성질은 외부 대상에 의해서 촉발되지만 우리 안에 그것에 대한 관념을 형성시키는 성질이라고 주장하는 로크와 달리 리드는 일차성질과 이차성질 모두 외부 대상의 성질로 귀속시킨다. 리드의 감각작용의 설명에

4) Locke, (1690) 137.

5) Berkeley, (2001) 127-131.

따르면 외부 대상이 가지고 있는 일차성질(이차성질 포함)과 우리 마음 안에 발생하는 감각작용 사이에는 전혀 유사성이 없다. 이 두 성질은 모두 대상 안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우리의 감각들은 우리에게 일차성질에 관해서는 직접적(direct)이고 명료한(distinct) 개념을 제공하는 반면에 이차성질은 상대적(relative)이고 불명료한(obscure) 개념만을 제공한다 (EIP 201)는 점에서만 두 성질 사이의 차이가 발생한다. 리드에게 두 성질 사이의 구별기준은 성질의 본성이 어디에 귀속되는가라는 형이상학적인 구별이 아니라 우리가 그 성질들을 인식하는 방식에 관한 인식론적인 구별이라 할 수 있다.⁶⁾ 즉, 두 성질은 모두 외부 대상 안에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인식할 때, 일차성질인 경우에는 직접적이고 명료하게 개념을 우리 안에 일으키고 이차성질인 경우에는 상대적이고 불명한 개념을 일으킨다는 차이점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리드가 감각작용이 자연적 기호로써 외부 대상의 성질들에 대한 기호화 작용을 실행한다고 했을 때 이 주장은 우리외부에 존재하는 대상들의 성질인 일차성질과 이차성질 모두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2) 지각작용

이러한 설명을 바탕으로 감각작용이 지각작용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자. 리드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의 외부 대상에 대한 지각작용(perception)은 그 작용에 상응하는 감각작용을 항상적으로 동반(constantly accompanied)한다. 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드에게 감각작용은 지각작용의 구성요소가 아니다. 왜냐하면 감각작용과 지각작용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리드는 “감각작용이 부재하면서도 지각작용을 실행할 수 있는 존재들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놓는다.⁸⁾ 더

6) McKittrick, (2002) 479.

7) Van Woudenberg, (2000), 71. EIP 194 참조.

8) Van Cleve, (2004) 106. 이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감각작용과 지각작용의 관계

육이 우리의 경험에 따르면 원래 특정한 지각작용은 각각의 특정한 감각작용과 일대일로 대응하도록 되어있다. 색깔에 관한 지각은 시각작용과, 냄새에 관한 지각은 후각작용과, 맛에 관한 지각은 미각작용과, 딱딱함과 같은 연장성에 관한 지각은 촉각작용과 결합하여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된다. 하지만 리드는 일부 지각작용 중에는 해당하는 감각작용이 없더라도 다른 감각작용과 연결되어 지각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예로서 “연장에 대한 시각적 지각 과 “대상의 공간적 위치를 제시한다.”⁹⁾ 원래 연장성(공간)의 지각은 촉각의 감각작용에 대응하는 것이지만 둘 사이에 연결 자체가 필연적이지 않아서 시각작용에 의해서도 연장에 대한 감각작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함으로써 리드는 감각작용을 지각작용의 필연적 구성요소로부터 떼어낸다. 물론 지각된 성질의 개념들과 감각작용 사이에 필연적인 연관관계가 없다하더라도 감각작용 없이 지각작용이 가능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¹⁰⁾ 토르페(Lucas Thorpe)는 이러한 연관관계를 ‘우연적 필연성(contingent necessity)’이라고 부른다.¹¹⁾ 이는 우리를 만든 자연법칙에 따르면 외부 대상의 지각작용을 위해서는 감각작용이 필연적으로 요구되지만 그러한 자연 법칙 자체가 우연적인 법칙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자연 법칙적 필연성(nomological necessity)이라 할 수 있다.¹²⁾ 이처럼 리드에게 감각작용은 지각작용과 연계되어 있기는 하지만 별개의 정신작용이다. 리드에 따르면 두 작용은 동시적이면서도 즉

가 본질적(intrinsic) 이라기보다는 외재적(external)관계임을 의미한다. Copenhaver, (2004) 71 참조.

9) Alston, (1989) 40, Van Woudenberg, (2000) 72.

10) Van Woudenberg, (2000) 71.

11) Thorpe, (2015) 106. 우연적 필연성이란 신에 의해서 창조된 이세상은 필연적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창조되지 않았을 수 있음에도 신에 의해 현재의 방식으로 창조되었다면 창조된 이후에는 창조의 방식에 따르는 필연성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 감각작용 없이는 지각작용이 가능하지 않다는 리드의 설명은 이와 같은 ‘우연적 필연성’안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12) Thorpe, (2015) 106.

각적으로 발생한다.

외부감각들은 이중의 관할구역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우리를 느끼게 만드는 것(make us feel)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를 지각하게 만드는 것(make us perceive)이다. 이 외부감각들을 우리에게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무관심한 다양한 감각작용들(sensations)을 공급한다. 동시에 이 감각들은 우리에게 개념작용(conception)과 더불어 외부 대상의 존재에 관한 확고한 신념을 제공한다. ……이 개념작용과 자연이 감각들에 의해서 산출한 신념을 우리는 지각작용(perception)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지각작용과 함께 따라오는 느낌(feeling)을 우리는 감각작용이라고 부른다. (EIP 210)

실제로 리드의 몇몇 진술들을 살펴보면 외부감각이 감각작용을 거쳐 지각작용에 도달한다기보다는 외부감각이 감각작용과 지각작용을 동시에 발생시키는 것처럼 진술하는 경우가 많다. 감각작용과 지각작용의 관계에 대한 리드의 설명방식은 감각작용과 외부 대상의 성질과의 관계에 대한 그의 설명방식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즉, 리드에 따르면 감각작용이 외부 대상의 성질에 대해서 자연적 기호로 작용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감각작용은 지각작용에 대해서도 자연적 기호로 작용한다. 감각작용이 발생했다는 것이 우리 밖의 외부 대상 (혹은 대상의 성질)이 있다¹³⁾는 것에 자연적 기호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감각작용이 있다는

13) 리드가 지각작용을 통해 대상을 성질(qualities)만을 직접 파악하고 그 성질을 담고 있는 물체(body)는 성질로부터 추론을 통해 지각하는지에 관한 논의가 학자들 사이에 존재한다. 하지만 리드는 성질들뿐만 아니라 성질을 담고 있는 물체도 직접적으로 지각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우리의 구성 원리로부터 우리가 외부 대상의 성질을 지각할 때 성질을 담고 있는 물체를 생각함 없이 성질만을 지각할 수 없다는데서 기인한다.(EIP 43) 리드의 필연적 진리를 위한 첫 번째 원리들 중 하나 역시 “감각에 의해서 우리가 지각하는 성질들은 우리가 물체라고 부르는 주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는 것이다.(EIP 495) 따라서 리드에게 있어 직접적 지각의 대상은 성질뿐만이 아니라 성질을 담고 있는 물체도 포함한다. EIP 217-18과 Folescu, (2015b) 24-29를 참조하라.

것은 우리 마음 안에 또 다른 작용으로서의 지각작용이 발생함을 보여주는 일종의 기호로 작용한다.¹⁴⁾ 사실 외부 대상의 성질에 대해 감각작용이 자연적 기호로 작용한다는 것과 지각작용에 대해 감각작용이 자연적 기호로 작용한다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오직 외부 대상의 물리적 성질들에 의해서 우리 안에 감각작용이 발생하는 동시에 그 감각작용이 그 성질들에 대한 지각을 일으키는 경우에만 감각작용은 지각작용과 관련하여 자연적 기호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¹⁵⁾

리드가 감각작용과 외부 대상의 대한 성질 사이를 설명할 때는 기호화(signify)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지만, 감각작용이 기호로서 지각작용과 동반된다고 말할 때는 시사한다(suggest)라는 말을 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두 관계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IHM 72-73.) ‘시사’라는 표현은 리드가 주관적 관념론자인 버클리의 기호이론에서 차용한 것으로 아마도 리드가 감각작용과 지각작용의 관계에서 시사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는 이유는 감각작용과 외부 대상간의 기호화 작용과 달리 이 기호화 작용은 마음 안의 두 작용 사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모종의 심적 연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제 감각작용과 구별되는 지각작용이 무엇이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자. 우선, 리드에 따르면, 감각작용과 달리 지각작용은 지향적인 작용으로 그 작용의 대상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지각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치통이 있는 경우, 치통은 심적 대상이 아니고 하나의 느낌에 불과함으로 우리는 ‘치통을 느낀다’고 하지 지각한다고 하지 않는다. 즉, 내가 지각한다고 말할 때 나는 무엇

14) 물론 감각작용이 자연적 기호가 되어 지각작용을 시사하는 것은 인간의 정상적인 정신작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일 것이다. 비정상적인 정신작용을 가지고 있을 경우 감각작용을 가지지만 지각작용을 갖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감각작용과 지각작용의 연결은 필연적일 수 없다.

15) Buras, (2002) 462.

무엇을 지각한다고 말하지 ‘나는 단지 지각한다’고 대상 없이 말하지 않는다. 리드는 지각작용 과정을 설명하면서 지각작용에는 “실행하는 마음(mind), 마음의 실행(operation), 그리고 실행의 대상(object) 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항상 있다고 설명한다.(EIP 161) 또한 리드는 지각작용의 대상과 관련하여 지각작용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첫째, 지각작용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그 대상으로 삼는다. 이런 점에서 지각작용은 개념화 작용과 상상력과는 다르다. 황금산은 실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나는 황금산을 지각할 수 없다. 둘째, 지각작용은 외부 대상(혹은 대상의 성질들)만을 그 대상으로 삼는다. 지각작용은 관념이론가들이 주장하는 ‘외부 대상에 대한 관념’처럼 마음안의 있는 것들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외부 대상을 그 대상으로 삼는다. 셋째, “지각작용의 직접적인 대상은 과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현재 존재하는 것이어야 한다. (EIP 22-23) 나는 내가 어제 본 책상을 지금 지각할 수 없다. 나는 오직 그 책상을 기억할 수 있을 뿐이다. 리드는 지각작용의 대상과 관련한 이상의 3가지 특징들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설명한다: 지각작용은 “지각된 [외부] 대상에 관한 개념작용 과 “그 대상의 현존에 대한 저항할 수 없는 강한 신념(확신) 그리고 이 신념 형성의 (추론이 아닌) 즉각성(immediacy)을 그 구성요소로 가진다.(EIP 96) 여기서 즉각성(immediacy)이라는 용어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각작용이 심적 매개체를 통해서가 아니라 외부 대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제 지각작용을 구성하는 다른 두 요소인 개념작용과 존재 신념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자.

우선 우리가 개념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칸트적 의미에서 ‘개념(concept)’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리드에서 개념작용(conception)은 경험에서 들어온 재료를 이미 주어진 순수 지성 개념인 범주 아래로 포섭하는 칸트적인 개념화 작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리드에게 개념작용은 모든 개별적인 정신작용에 동반되는 가장 기본적인 정신작용으로서, 리

드는 이것을 ‘어떠한 판단이나 신념을 포함하지 않은 채 단순히 어떤 것을 생각하는 것’으로 정의내리고, ‘상상하는 것(imagining)’, ‘파악하는 것(apprehending)’, ‘이해하는 것(understanding)’, ‘어떤 것을 마음에 품는 것(having something in mind)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EIP 24)¹⁶⁾ 즉, 리드에게 있어서 개념작용이란 한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아닌지 상관 없이 우리의 마음 안에 그 대상을 단순히 그리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념작용은 지각작용에서 뿐만 아니라 상상력의 작용에서도 사용된다. 우리는 개념작용을 통해 내 앞에 놓여 있는 책상 뿐 아니라 전혀 본적 없는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상상속의 켄타우루스도 마음에 가져올 수 있다. 그뿐 아니라 개념작용은 지각작용과 연관되어 때때로 비개념적으로(비명제적으로) 작용한다.(EIP 295)¹⁷⁾ 색깔, 크기, 모양과 같은 범주들을 마음 속에 전혀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는 개념작용을 실행할 수 있다. 예컨대, 태어나서 한 번도 빨간색을 경험해 보지 못해 마음속에 빨간색이라는 개념을 소유하지 못한 어린아이도 경험과 개념작용을 통해 빨간 대상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지각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경험주의자인 리드는 일반적인 범주를 미리 상정함 없이 개별적인 개념작용을 통해 귀납적으로 일반적인 범주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¹⁸⁾ 개념작용

16) Wolterstorff, (2001) 1, 2장 참조.

17) 이때 비개념적(비명제적)인 개념작용이라는 의미는 개념화되어 기술될 수 있는 형태의 내용을 마음에 갖는 것이 아닌, 러셀식의 친숙지와 같은 기술될 수 없는 내용을 마음에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러셀의 친숙지는 일종의 판단이 가미된다는 점에서 리드의 비명제적 개념작용과는 다르다. 감각작용에 의해서 생긴 아직은 분류되지 않은 개념작용은 판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 특정한 돌에 관한 시각적 감각작용에 의해서 떠오른 초기 개념작용은 ‘둥그스름한 무엇,’ 혹은 ‘푸르스름한 무엇’과 같은 구체적으로 기술될 수는 없지만 무엇인 것을 마음속에 떠오르게 할 수 있다. 즉, 분명히 구별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다소 불분명한 내용을 떠오르는 것을 비명제적 개념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반 클리브는 이러한 비명제적 개념작용을 ‘단지 정신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Van Cleve, (2004) 108; Folescu, (2015a) 63.

18) Folescu, (2015b) 19-36. 참조

의 특징이 이러하다면 개념작용에는 어떤 판단이나 신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어떠한 대상을 마음속에 품는 것(having something in mind)은 그 자체로 참이거나 거짓이 아니다.¹⁹⁾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념작용은 우리 자신의 순수한 창조물일 수는 없다. “우리는 감각 작용이나 지각작용 혹은 다른 정신작용에 의해 이전에 마주친 적 없었던 것에 대한 어떠한 개념작용도 형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²⁰⁾ 우리 정신에서 우리가 그려낸 것으로 상정되는 켈타우루스조차 실제로는 우리의 경험으로부터 얻은 여러 개념들이 결합된 결과이다.

지각작용의 또 다른 요소는 존재 신념이다. 다른 정신작용들도 개념작용을 자신들의 구성요소로 삼고 있으므로 개념작용만으로는 지각작용이 특징을 나타낼 수 없다. 다른 정신작용과 구별되는 지각작용의 구성요소는 지각 대상에 대한 존재 신념이다. 리드에 따르면 우리가 외부 감각기관을 통해 책상을 지각할 때 우리 안에 책상이 존재한다는 신념은 즉각적으로 발생한다. 물론 이때 감각작용과 존재 신념의 발생 사이에는 어떠한 인과적인 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 신념의 발생은 감각작용으로부터의 추론의 결과가 아니라 외부 대상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신념이다. 이 신념의 발생은 불가항력적이다. 우리는 지각작용을 실행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그리는 것이 존재한다고 믿지 않을 수 없다.²¹⁾ 이 경우 우리에게 믿지 않을 의지란 없다. 누군가 왜 책상을 볼 때 거기에 책상이 있다는 신념을 갖는가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다만 우리의 구성원리가 그러하다고 대답할 수 있을 뿐, 그 질문에 대한 어떠한 정당화

19) “명제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과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이다. (EIP 25) 물론 지각작용이 이러한 개념작용을 바탕으로 외부 대상 (혹은 외부 대상의 성질)에 관한 판단(존재 신념판단)을 내리는 경우에 비명제적으로 작동했던 개념작용은 범주와의 연관성을 갖게 되어 명제적으로(범주를 포함하여) 작동된다.(EIP 228;295)

20) Falkenstein, (2004) 158.

21) Van Woudenberg, (2000) 74.

근거도 제시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본성상 우리가 외부 대상을 지각할 때 그 대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단순히 믿도록 만들어졌을 뿐이다. 이 신념 때문에 개념작용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참과 거짓에 관한 판단이 지각작용 안에 들어오게 된다. 지각작용에서 판단기능은 이 지각대상에 대한 존재 신념에 의해서 발생하며, 이 신념이 개념작용과 즉각적으로 결합되어야 비로소 지각작용이 완성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리드는 ‘관념’ 없이 개념작용만을 가지고 어떻게 지각작용을 설명하는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리드의 외부 대상 지각에서 직접 지각하는 것은 마음 안에 있는 관념과 같은 것이 아니라 마음 밖에 있는 실제 외부 대상이다. 외부 대상(혹은 그 성질들)은 감각작용에 의해서 마음 상태의 일종의 변용을 일으키며 이 감각작용은 다시 ‘시사’라는 방법을 통해 그 대상을 마음 안에 그려내는 개념작용을 일으킨다. 이 때 개념작용은 그 외부 대상이 실제 존재하는지 혹은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단순히 감각작용에 의해서 시사된 그 대상(혹은 대상의 성질)을 마음속에 그려내는 역할을 하는데 이 때 마음속에 그려진 그 외부 대상이 실제로 현재 존재한다는 판단이 즉각적으로 더해지면 외부 대상의 지각이 완성되는 것이다.

4. 리드는 직접 실재론자인가?

리드에 따르면, 데카르트부터 흄에 이르기까지 소위 ‘관념의 길’을 따르는 철학자들은 우리의 모든 심적 작용의 대상이 되는 것들은 마음 안에 직접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어야만 하지 결코 마음 밖에 있는 것이 될 수 없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이들 가운데 실재론자들은 우리가 외부 대상을 지각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우리는 그 대상을 직접 지각할 수 없으며

‘관념’과 같은 마음속에 나타내는 심적인 대상물의 매개를 통해서만 지각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우리는 외부 대상이나 대상의 성질들을 어떠한 심적인 대상물의 매개 없이-즉, 관념이나 감각자료를 통한 추론 과정 없이- 직접적으로 지각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이들을 직접 실재론자라고 부른다. 이들에 따르면 지각작용의 직접적 대상은 지각자와 지각작용에 완전히 독립적인 외부 대상이나 성질들이다. 리드의 지각이론에 따르면 우리 안에 ‘관념’과 같은 외부 대상과 심적인 지각작용을 연결시켜 주는 심적인 매개물은 존재하지 않으며 지각작용의 직접적인 대상이란 항상 현재 존재하는 외부 대상이어야 하므로 우리는 리드를 직접 실재론자라고 간주 할 수 있다. 하지만 리드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철학자들이 과연 리드의 지각이론이 직접 실재론일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 존재해 왔다.²²⁾ 그들에 따르면 리드의 의도는 직접 실재론을 염두해 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의 설명 중 몇 가지 요소들로 인해 직접실재론으로 해석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한 요소들 중 대표적으로 고려되는 것이 바로 감각작용의 역할이다. 감각작용과 연관된 물음에서 과연 리드의 이론이 모순 없이 직접 실재론적 입장을 견지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1) 감각작용의 역할

리드의 주장과 달리 리드는 직접실재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리드가 관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 감각작용이 관념과 동일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근거로 삼는다. 리드는 외부 대상이 감각기관에 인상을 남기게 되면 감각작용과 더불어 동시에 지각작용이 발생함을 보이기 위해 ‘동반한다(accompany).’ ‘연접하다(conjoin)’와 같은 단

22) Strawson, (1990) 15; Hamilton, (1983) 816-824; Chappell (1989) 49-64; Van Cleve, (2004) 125-128; Cummins, (1974) 317-340 참조.

어를 주로 사용한다.(EIP 37;194;199;211)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둘 사이에는 법칙적 필연성이 존재하고 실제로 감각작용 없이는 지각작용의 발생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리드 학자들은 감각작용과 지각작용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다.²³⁾ 실제로 그의 초기 저작인 『인간 마음에 관한 탐구』에는 감각작용과 지각작용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인과적 순서를 가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상당히 존재한다.²⁴⁾ 만약 이러한 해석이 옳다면 리드에게서 감각작용이란 용어만 다를 뿐 외부 대상과 지각작용을 연결시켜주는 심적 존재물로서의 ‘관념’이 하는 역할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것이 되므로 리드의 이론을 직접실재론으로 해석하기 어렵게 만든다.

하지만 감각작용과 지각작용 사이가 인과관계임을 인정한다는 것이 필연적으로 리드의 이론을 지각에 관한 간접 실재론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감각작용과 지각작용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더라도 리드의 이론이 직접 실재론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몇 가지 이유가 존재한다. 첫째, 리드에게 감각작용은 마음의 독립적인 작용이기는 하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향적인 대상을 가지는 작용이 아닌 일종의 심적 상태에 불과하다. 즉, 감각작용은 마음이 특정한 방식으로 영향 받은 상태일 뿐 존재론적으로 말해서 우리 정신 안에 어떠한 심적 대상물도 가지고 있지 않는다.²⁵⁾ 따라서 심적 상태에 불과한 감각작용은 지각작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보자면 감각작용의 심적 상태(특정한 감각을 느끼는 상태)가 지각작용에 인과적 영향을 준다고 해도, 지각작용은 외부 대상만을 직접적인

23) Immerwahr, (1978): 247-8; Pappas, (1989) 160; Copenhaver, (2004) 72; Buras, (2002) 462.

24) “대상을 지각하는 우리의 능력은 그것이 특정한 대응하는 감각작용에 의해서 격발되고 자극되기 전까지는 잠재되어 있다. (IHM 174) “마음은 감각작용에서 우리가 지각작용의 대상에 대한 개념작용과 [그 대상에 대한 존재]신념으로 즉각적으로 옮겨진다. (IHM 177) 또한 EIP 236 에도 유사한 구절이 존재한다.

25) Van Cleve, (2004) 119.

대상으로 삼게 됨으로 리드의 직접실재론은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

둘째, 감각작용이 외부 대상과 지각작용 사이를 인과적으로 매개한다고 해도 인과적 매개와 인지적 매개는 다른 것이다. 지각에 관한 직접실재론은 단지 외부 대상을 지각하는데 있어서 추론과 같은 어떠한 지각적(인지적) 매개가 없어야 함을 주장한다.²⁶⁾ 따라서 외부 대상과 지각작용 사이를 연결해주는 감각작용이라는 인과적 매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인지적 과정과는 무관한 인과적 매개에 지나지 않는다면 리드의 이론을 지각에 관한 직접적 실재론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실제로 리드가 감각작용은 지각작용을 ‘시사한다(suggest)’고 표현 할 때 이 용어는 버클리의 기호이론으로부터 차용한 용어였는데, 버클리에 따르면 ‘시사한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촉발되는 것(automatic triggering)’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론한다’는 말과는 다른 뜻을 내포하는 단어였다.²⁷⁾ 이러한 견해는 ‘감각작용이 지각작용을 시사한다’는 리드의 표현이 법칙적 필연성만을 내포한다는 앞선 설명과 일치하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리드가 버클리와 동일한 방식으로 ‘시사’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면 감각작용은 지각작용에 인과적으로 앞서 있다고 하더라도 감각작용은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지각적 매개체가 아니므로 지각작용은 외부 대상을 직접 지각의 대상으로 삼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더욱이 토르페(Lucas Thorpe)에 따르면, 리드에게 있어 지각작용을 발생시키기 위한 감각작용의 인과적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지각작용을 발생시키기 위한 배경으로밖에 사용되지 않는다.²⁸⁾ 감각작용이 지각작용에 미치는 영향이란 마치 식사하는 동안에 흘러나오는 배경음악이나 벽지와

26) Van Cleve, (2004) 112.

27) Van Cleve, (2015) 77. “지각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이 별개이듯이, 시사되는 것과 추론되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이다. 사물들은 감각에 의해서 시사되고 지각된다. 우리는 이성에 의해서 추론하고 판단한다. Berkeley, 『새로운 시각이론』 42절. 위의 책에서 재인용.

28) Thorpe, (2015) 105.

같이 지각작용에 있어 어떠한 인식적 중요성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²⁹⁾ 토르페의 이러한 견해는 리드의 감각작용의 역할을 축소 시킴으로 리드가 여전히 직접 실재론을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믿는데 도움을 준다.

2) 개념작용의 역할

지금까지의 감각작용에 대한 해석의 밑바탕에는 ‘감각작용이란 대상을 가지지 않는 특정한 방식으로 영향 받은 마음의 상태(변용)’라는 주장이 놓여있다. 하지만 리드의 문헌에는 이와 배치되어 보이는, 즉 ‘감각작용은 대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구절들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구절들은 리드의 이론을 직접 실재론으로 파악하는데 또 다른 방해물로 작용한다. 리드의 감각작용이 대상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은 크게 두 개의 다른 본문들로부터 발생한다. 첫 번째는 리드가 ‘개념작용은 모든 정신작용의 구성요소’라고 주장하는 곳에서 나온다.(EIP 295) 즉, 마음 속 모든 정신작용의 구성요소로 작용하는 개념작용은 그 작용 대상을 가지고 있는 정신작용으로, 만약 감각작용이 이러한 개념작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감각작용 역시 그 대상을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감각작용도 대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EIP 311) 두 번째는 리드가 감각작용이 대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구절 가운데 일종의 조건이 달려 있다는 점이다. 그 구절에 따르면 리드는 ‘감각작용은 대상을 전혀 가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대신 “감각작용은 작용 그 자체와 구별되는 대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It has no object distinct from the act itself) 고 진술한다.(EIP 36) 감각작용도 다른 모든 정신작용과 마찬가지로 개념작용을 그 구성요소로 가져야 한다면 대상을 갖지 않는 감각작용도 일상적인 의미에서의 대상을 가지지 않더라도 특정한 방식으로라도

29) Thorpe, (2015) 105-106.

대상을 가져야 하는데 이것을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감각작용은 작용 그 자체와 구별되는 대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일부 리드 학자들의 주장이다.³⁰⁾ 이 해석에 따르면, 감각작용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대상을 소유하지는 않지만 그 자체와 구별되지 않는 대상은 가질 수 있는 정신작용으로 간주된다. 그렇다면 감각작용은 감각작용 자체를 자신의 대상으로 삼는 “재귀적인(reflexive) 정신작용³¹⁾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해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감각작용과 지각작용을 구별하면서 지각작용은 세상을 행하는 정신작용이지만 감각작용은 감각작용 그 자체를 대상으로 삼는다고 주장한다.

감각작용이 재귀적인 정신작용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전통적인 입장, 즉 모든 정신작용이 재귀적 정신작용이라는 입장에 리드도 동의한다고 주장한다.³²⁾ 왜 모든 정신의 작용들은 스스로에게 의식되어야 한다고 진술하는가?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기인한 전통적인 입장에 따르면, 지각을 포함한 우리의 정신작용들은 그 작용이 향하는 대상을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항상 작용 자체에 대한 의식(이차지각)을 포함해야 한다.³³⁾ 즉, 경험칙상 모든 정신작용에는 그 작용이 향하는 대상과 동시에 그 작용 자체를 의식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정신작용 자체에 대한 의식작용은 무엇으로부터 기인한다고 말해야 하는가? 만약 이것이 다른 정신작용의 활동이라면 우리는 그 작용 역시 정신작용이므로 그 작용을 대상으로 삼는 또 다른 상위의 정신작용을 상정해

30) Buras, (2002) 457-477; Hossack, (2006) 36-6.3

31) Buras, (2002) 458.

32) “정신의 작용들이란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생각의 모든 양상들이라고 우리는 이해한다. (EIP 20) “우리 정신의 모든 작용들은 의식에 의해서 주목된다. (EIP 191) “어떤 사람도 그가 생각한다든 것을 의식함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 만약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정신의 작용들을 가정하고 그러한 상상의 산물에 이름을 준다면 그 이름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을 표시해야만 한다 (signify). (EIP 191)

33) Aristotle, (1907) 425b12-25.

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자면 우리의 정신작용은 계속해서 상위의 지각작용을 요구하는 무한후퇴로의 길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무한 후퇴를 피하기 위해서 정신작용은 그 작용이 향하는 대상과 동시에 그 작용자체를 자신들의 작용 대상으로 삼아야한다고 보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제시된 무한 후퇴를 막는 해결방법이었다.

로크를 비롯한 몇몇 근대철학자들 역시 모든 정신작용들(혹은 정신 상태들)은 의식적이라는 데 동의한다.³⁴⁾ 그들은 “누군가 지각한다는 것을 지각함 없이 지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며³⁵⁾, 모든 정신작용들은 의식되지 않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간주하는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에 동의한다.³⁶⁾ 리드의 감각작용이 재귀적인 사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리드도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식의 주장, 즉 모든 정신작용은 그 자체로 의식적이며, 따라서 의식적인 모든 정신작용은 그 자신을 대상으로 삼지 않는 한 의식의 무한후퇴에 빠진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믿는다.(EIP 58) 만약 이러한 해석이 사실이라면 정신작용들 중 하나인 리드의 감각작용 역시 자신과 다른 대상은 가지지 않더라도 적어도 감각 작용 자체는 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감각작용 자체를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감각작용 자체를 마음속에 그려야만 가능하게 됨으로 당연히 개념 작용을 포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들은 이러한 해석만이 앞서 언급한 감각작용을 포함한 모든 정신작용에 개념작용이 구성요소로 포함되는데 리드의 진술을 모순 없이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만약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직접실재론에 관한 리드의 주장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감각작용이 그 자체를 대상으로 삼

34) Coventry & Kriegel, (2008) 229.

35) Locke, (1690) 335.

36) 아마도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대표적인 근대철학자는 라이프니츠일 것이다.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모든 정신작용이 다 의식적인 것은 아니다. G. W. Leibniz, (1981) 118.

는 개념작용을 포함하면서 동시에 감각작용이 지각작용에 인과적으로 선행한다는 주장은 감각작용이 단지 인과적으로만 지각작용을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적으로도 선행한다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우리가 감각작용이라는 지각된 매개체를 통해서만 외부 대상을 추론적으로 지각할 수 있다는 주장이므로 리드의 이론을 직접 실재론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만든다.

하지만 리드의 체계에서 감각작용은 다른 정신작용과는 달리 어떤 방식으로든 대상을 가지고 있지 않는, 대상없는 마음의 상태일 뿐이라는 주장은 그의 문헌 도처에서 드러난다. 즉 리드에게 감각작용이란 그 작용이 지향하는 작용대상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작용의 대상과 작용이 구별되지 않는 작용으로 지각작용과도 그리고 의식작용과도 구별된 하나의 독립적인 작용으로 간주된다.³⁷⁾ 더욱이 리드는 감각작용과 지각작용을, 그리고 지각작용과 의식작용을 엄격히 구별한다.³⁸⁾ 리드에게 의식작용(consciousness)은 다른 별도의 독립적인 정신작용으로, 다른 정신작용들을 그 대상으로 삼는 유일한 정신작용이다. 따라서 리드에게 외부 대상을 지각하는 것과 외부 대상을 지각하는 것을 의식하는 것, 그리고 고통을 느끼는 것과 고통을 느끼는 것을 의식하는 것은 전혀 다른 정신작용들의 묶이다. 만약 앞선 해석에서처럼 리드가 감각작용이 그 자신을 대상으로 삼는 작용이라고 생각했다면 왜 의식작용이라는 다른 모든 정신작용을 대상으로 삼는 또 다른 정신작용을 상정했겠는가? 이러한 해석은 의식작용을 불필요한 과잉의 작용으로 만들어 버린다.³⁹⁾ 더욱이 감각작용이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삼는 정신작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의식의 무

37) Van Cleve, (2015) 25-33; Ganson, (2008) 245-263; EIP 38, 136, 196; IHM 168.

38) “의식작용이 지각작용과 항상 함께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의식작용과 지각작용은 서로 다른 정신작용이고 서로 다른 작용의 대상들을 갖는다. 동일한 주장이 작용대상을 가지고 있는 모든 정신작용에도 말해질 수 있다. (EIP 170)

39) Ganson, (2008) 254.

한후퇴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감각작용을 의식하기 위해서 다른 정신작용, 즉 이차적인 의식작용이 필요할 수는 있겠으나 의식작용만이 자기 자신을 포함한 다른 모든 정신작용들을 대상으로 삼는 정신작용이라고 간주한다면 의식의 후퇴는 이차적인 수준에서 멈출 수 있다. 즉 모든 정신작용이 이중의 대상-작용이 향하는 대상과 작용 자체-을 갖는다고 주장하지 않고 의식작용만이 이중의 대상을 갖는다고 주장하더라도 의식의 무한후퇴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⁴⁰⁾

그렇다면 감각작용이 작용의 대상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작용이라면 어떻게 ‘개념작용이 감각작용에 구성요소’가 될 수 있는가? 간슨(Ganson)은 ‘개념작용이 모든 정신작용의 구성요소(ingredient)’라는 리드의 진술에서 ‘구성요소’라는 단어는 종종 리드 문헌 안에서 ‘동반된 것(concomitant)’이라는 단어를 대치했다고 주장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한다.⁴¹⁾

‘판단이 [지각, 기억, 의식]작용의 구성요소(ingredient)라기보다 그 작용들에 필연적으로 동반된 것(concomitant)이라고 명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나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EIP 409)

만약 간슨이 말한 것처럼 ‘개념작용은 모든 정신작용에 구성요소’라는 주장을 ‘개념작용은 모든 정신작용에 동반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동시에 ‘감각작용이 존재한다’는 의식은 감각작용의 활동이 아니라 의식작용의 활동이고 이러한 의식작용은 감각작용에 동반되는 작용이라고 이해

40) 물론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과거로부터 당연하게 여겨왔던 ‘모든 정신작용은 작용이 실행될 때 동시에 의식된다’고 보는 주장을 거부해야 할 것이다. 즉 ‘모든 정신작용은 의식적’이라는 주장을 ‘모든 정신작용은 우리가 원한다면 의식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거나, 아니면 모든 정신작용은 그 작용이 실행된 후 곧바로 그 정신작용에 대한 의식작용이 수반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41) Ganson, (2008) 250.

한다면, ‘개념작용은 모든 정신작용에 구성요소’라는 리드의 진술과 ‘감각작용은 대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정신작용’이라는 주장은 서로 양립 가능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며, 동시에 리드의 직접실재론적 입장도 전혀 손상되지 않은 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관념 없이도 리드가 직접실재론을 일관되게 주장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감각작용의 역할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감각작용의 역할은 관념의 역할과는 다르며 우리가 외부대상을 지각하는데 있어 어떠한 추론적인 매개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였으며, 적어도 감각작용의 역할과 관련해서 리드의 직접실재론적 입장은 논리적 일관성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5. 나가며

본 논문을 통해 우리는 리드가 왜 데카르트 이후 관념의 길이라고 불리는 관념이론체계를 거부했는지, 그리고 관념이라는 정신적 대상물 없이 어떻게 외부 대상에 대한 지각과정을 설명하는지를 간단히 살펴보았다. 또한 관념의 매개 없는 리드의 지각이론이 지각에 대한 직접 실재론적 입장이라는 것과 리드의 지각이론을 직접 실재론으로 해석하는데 방해물로 작용될 수 있는 감각작용으로부터 제기되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결방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물론 리드의 직접 실재론적 입장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감각작용에 관한 물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실제로 리드의 지각이론에서 특정한 위치를 차지하는 획득지각이 과연 지각의 위치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리드의 설명이나 우리가 물체의 성질들이 아닌 대상으로서의 물체를 어떻게 지각하는지에 대한 리드의 설명에도⁴²⁾ 리드를 직접 실재론자

로 간주하는데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한다. 하지만 본 논문의 주제는 감각작용과 연관된 리드의 직접 실재론적 주장의 양립가능성에 관해서만 다루었다. 지면 분량의 제한으로 인해 여기서 다루지 못한 위에 언급한 다른 관련 주제들도 다른 글들을 통해 자세히 해명되기를 희망한다. 이 논문은 리드의 지각이론이 적어도 감각작용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모순 없이 우리의 마음이 외부 대상을 직접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42) 본 논문의 각주 14) 참고.

참고문헌

- Alston, William P. (1989) "Reid on Perception and Conception in: *The Philosophy of Thomas Reid*, DalGarno, Melvin & Matthews (ed.)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 35-48.
- Aristotle, (1907) *De Anima*, (trans.) R.D. Hicks. Cambridge: Cambridge Univeristy Press.
- Ben-Zeev, Aaron. (1989) "Reid's Opposition to the theory of ideas in: *The Philosophy of Thomas Reid*, DalGarno, Melvin & Matthews (ed.)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 91-102
- Berkeley, Georgy. (2001) 『하일라스와 필로누스가 나눈 대화 세 마당』 숭실대학교 출판부. 한석환 옮김.
- Buras, Todd (2002), "The Problem with Reid's Direct Realism, *The Philosophical Quarterly*. 52(209): 457-477.
- Chapell, Vere. (1989) "The Theory of Sensations in: *The Philosophy of Thomas Reid*, DalGarno, Melvin & Matthews(ed.)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 49-63
- Copenhaver, Rebecca. (2004) "A Realism for Reid : Mediated but Direct. *British Journal for the History of Philosophy* 12(1): 61-74
- Copenhaver, Rebecca. (2010) "Thomas Reid on Acquired Perception. *Pacific Philosophical Quarterly* 91(3) : 285-312.
- Coventry, Angela & Kriegel, Uriah (2008) "Locke on Consciousness *History of Philosophy Quarterly* 25(3): 221-242.
- Cummins, Philip (1974) "Reid's realism *Journal of the History of Philosophy* 12: 317-340.
- Flakenstein, Lorne. (2004) "Nativism and the Nature of Thought in: *The Cambridge Companion to Thomas Reid*, Cuneo, Terence &

- Woudenberg, René(ed.) Cambridge: Cambridge Press: 156-179
- Folescu, Marina. (2015a) "Perceptual and Imaginative Conception: The Distinction Reid Missed. In Todd Buras & Rebecca Copenhaver (eds.), *Thomas Reid on Mind, Knowledge and Value*. Oxford University Press: 52-74.
- Folescu, Marina (2015b) "Perceiving Bodies Immediately: Thomas Reid's Insight. *History of Philosophy Quarterly* 32 (1): 19-36.
- Ganson, Todd (2008) "Reid's Rejection of intentionalism. *Oxford Studies in Early Modern Philosophy* 4: 245-263
- Hamilton, William. (1983) "On the Variation Theories of External Perception : in *The philosophical works of thomas Reid*. Georg Olms: 816-824.
- Hossack, Keith. (2006) "Reid and Brentano on Consciousness : in *The Austrian Contribution to Analytic Philosophy* Routledge: 36-63
- G. W. Leibniz, (1981) *New Essays on Human Understanding*, (trans.) Peter Remnant & Jonathan Bennet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18.
- Immerwahr, (1978) "The development of Reid's realism, *The Monist*, 61(2): 245-256
- McKittrick, Jennifer. (2002) "Reid's Foundation for the Primary/Secondary Quality Distinction *The Philosophical Quarterly* 52(209): 476-494
- Lehrer, Keith (1978) Reid on Primary and Secondary Qualities*, *The Monist* 61(2): 184 - 191.
- Locke, John. (1690) *An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ed., P. H. Nidditch (1975), Oxford: Oxford Univ. Press.
- Thorpe, Lucas. (2015) "Seeing white and Wrong: Reid on the Role of Sensations in Perception, with a Focus on Color Perception,

- Thomas Reid on Mind, Knowledge and Value*, Oxford: Oxford University: 100-123
- Pappas, George. (1989) 'Sensation and perception in Reid', *No s* 23 (2):155-167
- Reid, Thomas. (1997) *An Inquiry into the Human Mind: On the Principles of Common Sense (IHM)*, ed. Derek R. Brookes. University Park, Pa.: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 Reid, Thomas. (2002) *Essays on the Intellectual Powers of Man (EIP)*, ed. Knud Haakonssen. University Park, Pennsylvania: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 Strawson, Galen. (1990) What's so good about Reid? *London Review of Books*: 14-16.
- Van Cleve, James. (2004) "Reid's Theory of Perception in: *The Cambridge Companion to Thomas Reid*, Cuneo, Terence & Woudenberg, René(ed.) (2004) Cambridge: Cambridge Press: 101-133
- Van Cleve, (2015) "Four Questions about Acquired Perception, in Todd Buras & Rebecca Copenhaver (eds.), *Thomas Reid on Mind, Knowledge and Value*. Oxford University Press: 75-99
- Van Cleve, James. (2015) *Problems from Rei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Van Woudenberg, René. (2000) "Perceptual Relativism, Scepticism, and Thomas Reid in: *Reid Studies* 3(2), 2000: 65-85
- Wolterstorff, Nicholas. (2001) *Thomas Reid and the Story of Epistemology*, Cambridge: Cambridge Press.
- Yolton, John. (1996) *Perception & Reality*,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 Press.

The Role of Sensation and Conception in Reid's Perception Theory

Kim, Jong Won (Sogang Univ.)

Thomas Reid rejects the philosophical system, so-called 'the way of ideas', which uses idea as the intermediary between mind and external object. According to the theory, we can perceive external objects only through ideas. However, Reid thinks otherwise. According to Reid's direct realism, we can directly perceive external object without the help of any mental mediation.(i.e. ideas) in order to explain his direct realism, Reid uses a sign theory; sensation naturally signifies the quality of external object and at the same time signifies(suggests) perception of it. however, there has been a critique about the role of sensation in Reid's direct realism; since sensation is almost identical with idea, Reid's explanation of direct realism is failed. Against such a claim, we can say that sensation is not identical with idea, since Reid's sensation is just a modification of mental states which do not have its mental object. Moreover, even if sensation mediates between external object and perception, Reid's direct realism can remain intact since the mediation is not cognitive, but causal one.

Key words: Thomas Reid, direct realism. sensation, conception, perception. the way of ideas.

철학탐구 제51집

김종원 E-mail: kimjw74@hotmail.com

투 고 일	2018년 07월 11일
심 사 일	2018년 07월 30일
게재확정	2018년 08월 14일